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회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1월 16일 (제76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많이 심자!

나는 농사꾼의 자녀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짓는 것을 보았고, 어린 티를 벗을 즈음부터는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일손을 도왔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셨다. 남들은 논이나 밭에만 씨를 뿌릴 때, 우리 부모님은 땅이란 땅에는 무조건 씨를 뿌리셨다. 도랑 옆이건, 사람이 다니는 길 옆이건 논둑길이건 되는대로 다 씨를 뿌리셨다. 내 생각엔 거기는 밭에 밟혀 뭐가 되겠냐 했지만, 곧 내 생각이 틀렸음이 밝혀졌다. 많이 밟혀 죽고, 더러는 땅이 유실되어 씨 채로 사라져도, 심지 않은 것보다는 심은 것이 이득이 있음을 보았다.

나는 30년 째 농사를 짓고 있다. 영혼농사다. 30년 농사에 다시 한 번 우리 부모님의 하신 일이 지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조건 씨를 심었다. 거리불문 환경불문 비용불문하고 씨를 심었다. 물론 거의 유실될 때도 있었다. 들인 공에 비해 득이 훨씬 적을 때도 많았다. 실컷 씨를 뿌리고 돌아왔더니 새가 쪼아 먹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겪고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심지 않은 것보다는 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조건을 따진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러나 전도에는 조건이 없다. 무조건 심고 봐야 한다. 그러면 거두게 된다. 확실하게 믿음이 서는 자도 거두고, 더러는 비실비실한 믿음으로 거두게 될 때도 있다. 더러는 아예 못 거둘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컨대 안 심는 것보다는 이익이 있다.

추수감사절이다. 단상 가득 드려진 햇곡식과 익은 과일이 아름답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가득히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형편이 닿는 대로, 무조건 많이 씨를 심자! 반드시 더 많이 거둘 것이다.

향기 나는 명품인생이 되라

절정인 내장산 단풍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추계산상집회에는 수학능력시험과 겹치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다.

총회장 목사님은 첫 날 첫 시간에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과일도 익으면 향기가 난다. 네 인생은 명품이냐, 짝퉁이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20여 년 전 즈음에 미국 텍사스 집회를

때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온유'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가 반평생 넘게 살다보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온유한 자가 좋지요?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 온유한 자식, 상사, 부하직원... 하긴 예수님도 온유한 자를 좋아하셔서 온유한 모세를 쓰셨고, 자신도 온유함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에도 혈기를 내고, 독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 익을 때까지 성령의 나무에 달려있어야 합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된 줄 알고 떨어지면 썩어 벌레 밤이 되고 악취만 풍기게 됩니다. 가끔 잘 나가던 목회자를 비롯한 저명인사들이 쇠다고 자랑하다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유는 과일이 익기도 전에 나무에서 떨어져 썩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



추계산상집회(2014. 11.10~13, 장성예루살렘기도원)

갔을 때 주최 측 집사님들과 백화점 명품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 정말 명품은 명품입니다. 물건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열도, 포장도 예사 것과는 달라 '이래서 명품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짝퉁을 보세요. 모양은 그럴듯하게 복제해냈는지 모르지만 포장은커녕 진열도 못한 채 숨겨놓고 팝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어디에 내다놔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놓기에 당당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가지에 붙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

런 자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이니 명품은 고사하고 상품가치조차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처분 되고 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흠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자 분이 가 득하여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욕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온유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는 썩어서 벌레가 끓고 냄새도 고약하게 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익은 과일에서는 향기가 나지요. 농부는 잘 익은 것을 싱싱할 때 따서 창고에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인격, 신앙에 있어 잘

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에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에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고후2:15~16).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것의 기초는 온유함에서부터 옵니다. 부드러운 말, 온화한 성품이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에게 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마 5:5)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명품 인생, 향기 나는 인생이 되자.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이초석 목사 엘살바도르 집회 11월 17(월) ~ 28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6:1~33)

믿음은 영웅한 자들의 몫이다

믿음은 보편적 지식을 뛰어넘은 영웅한 자들의 몫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든 인생이든 현실에 잘 훈련된 사람들,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생각을 가진 자들, 역발상 할 줄 아는 자들이 성공하고 기적을 맞본다는 말입니다.

근래에 TV광고를 보면 영웅한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냉장고 광고는 당연히 여자 모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접고 요즘은 남자 모델이 냉장고 광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업주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주부들이 그 남자 모델 때문에 그 냉장고를 더 선호하게 되고, 더는 아직 바꿀 시기가 아닌데도 서둘러 바꾸었다는 겁니다. 역발상 마케팅의 성공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영웅한 자들에 의해 진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 그는 상식의 눈으로 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계란을 품고 있기도 했고, 날 수 있다는 약을 만들기도 했으며, 실험한다고 기차역에 불을 내기도 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웅함이 결국 전구도 만들고, 축음기도 만들고, 영사기 등등 무려 천 점이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도 영웅한 자입니다. 사람도 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로는 상식선 이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년간의 연구를 거듭해서 결국 동력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자의 사람으로 빌 게이츠를 봅시다. 그는 세계인 모두의 책상에 컴퓨터를 놓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는 컴퓨터가 대문짝만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웅했습니다. 지붕을 뚫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 침상 네 귀퉁이를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침상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막2:5).

모세는 공주의 자녀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그의 지식은 너무 교과서적인 것이었습니다. 틀에 박힌 지식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교과서적인 지식을 다 빼

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후 출애굽하게 되는데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면초가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방법들은 실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영웅하고 기상천외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라고 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예전의 지식으로 가득했다면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지팡이를 내민다고 이게 갈라집니까?” 그러다 결국 애굽 군대에 다 잡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웅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토 달지 않고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단언컨대 보편적 지식을 버려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3:7~9).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남의 자리를 빼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침노하라는 말씀인데, 믿음의 침노는 보편적 지식, 고정관념,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지

만

삭개오를 봅시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나가 예수님을 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로 길목은 막혔고, 유난히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때 그의 머리가 영웅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 볼까?’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다가오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눅19:5)”라고 하셨습니다. 침노하여 천국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처음 우리교회 이름은 철산예루살렘교회였습니다. 광명 철산리에 있는 인복 유치원 지하에서 목회를 할 때였지요. 그런데 황지에서 토레이 신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성령께서 저에게 ‘한국예루살렘교회’로 개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영웅하기는... 철산리에서 나 잘해.”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국예루살렘교회라고 개명했습니다. 물론 다들 이상하다고, 영웅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철산리 구석에서 목회하면서 무슨 한국예루살렘교회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 영웅하다는 것은 제 분수를 뛰어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

상식의 틀을 깨는 상상력 곧 역사 진보의 시작이다

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네 분수를 뛰어넘으라고, 상식이상으로 생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의 입, 곧 목표를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임신케 하신 이가 순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사66:9). 지금 우리는 한국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끄는 예수중심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디슨도, 라이트 형제도, 지붕을 뚫은 4명의 친구도, 모세도, 삭개오도 영웅하다고, 이상하다고, 틀렸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못들을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당연한 반응입니다. 상식 밖의 진리를 모르는 자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임신하면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땀투게비 같은 아들을 낳으면, 공주 같은 딸을 낳으면 모두가 잘했다며 축하하는 것처럼, 목적을 이루고 나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모든 재산을 팔아 진주 하나를 산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분명히 영웅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미쳤다는 소릴 들었을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치를 발견하는 혜안은 결코 고정관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고 비트는 역발상에서 새로운 발견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물 안 개구리는 결코 너른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물 속을 나와야 합니다. 고정관념, 보편적 지식, 교과서적인 지식에서 빠져나와 상상의 날개를 달아봅시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하나님 편에 서는 삶::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졸업반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서 무엇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른들도 대답하기 곤란한 이 질문에 당연히 어느 학생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50살이 되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70세가 되던 해에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어린 시절 선생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어. 이제 작은 것일 지라도 남길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건 정말 내게 행운이야.”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지속적인 생각이 그들의 삶을 정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90:10 원칙’에 따르면, 우리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사건들로 결정되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10% 만이 우리 마음대로 하기 어렵

고, 대부분의 90%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통제가 되는 90%를 완전히 장악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무언가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10%마저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가치 있는 방향으로 한 가지 생각을 끈기 있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공은 한 방향으로 온 정성을 다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 생각에 맞추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하지 않으면 공상(空想)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갖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는 90%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16:9)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범씨를 심자!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의 석유왕으로 억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는 생전 자신의 간증에서 “만일 내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 9:6)’는 말씀을 듣고, 그때 월급 6달러에서 십일조 60센트를 심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과 같이 1백만 달러를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록펠러가 기업을 세운 후, 하나님께 철저한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 십일조 전담 회계 부서의 직원만 4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십일조 생활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록펠러는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십일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이 사업은 십일조의 축복으로 된 사업이니 너희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평생의 교훈

으로 삼아야 한다.”

농부는 봄이 되면 범씨를 심습니다. 씨나락을 심는 겁니다. 이 씨나락을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농부도 이 범씨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한 많이 심은 농부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영적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일조는 범씨입니다. 영적 씨나락입니다.

추수철, 당신은 얼마나 거두셨습니까? 적게 거둬 속이 상합니까? 당신이 적게 심어서 그런 겁니다. 아예 거둘 것이 없습니까? 자업자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 심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지어 많은 데서는 거두게 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수확이 어떻습니까?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난 11월 4일, 대구에서 나라를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행했던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오길 잘 했다고 말씀하셨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다 살고, 가만히 있으면 모두 같이 망한다고 하시며 오직 우리의 살 길은 합심기도뿐이다. 통 큰 자가 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서 무사안일한 자신이 부끄럽고, 이제 나라를 위해, 자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어르신을 필두로, 시작부터 눈물만 흐르더라는 분도 있고, 친구 따라 왔다는 어떤 분은 자신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면 초청해줘서 고맙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 고백하는 자나 그 고백을 듣는 자나 함께 예수님 찬양을 부르며 돌아오는 길은 어느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무엇이 그분들의 마음을 깨우고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3~16)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사도행전 24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염병을 퍼뜨리는 자라며, 가는 곳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소동이 일어났

다고 말한다. 곧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라는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면서(딤후 6:11),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피할 것은 피하고 좇을 것은 좇으며 담대히 싸워서 반드시 취하여야 할 것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다. 부천에서, 잠실에서, 서울시청광장에서, 또 대구에서 가진 평화통일 기도성회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차 안에서 내내 감사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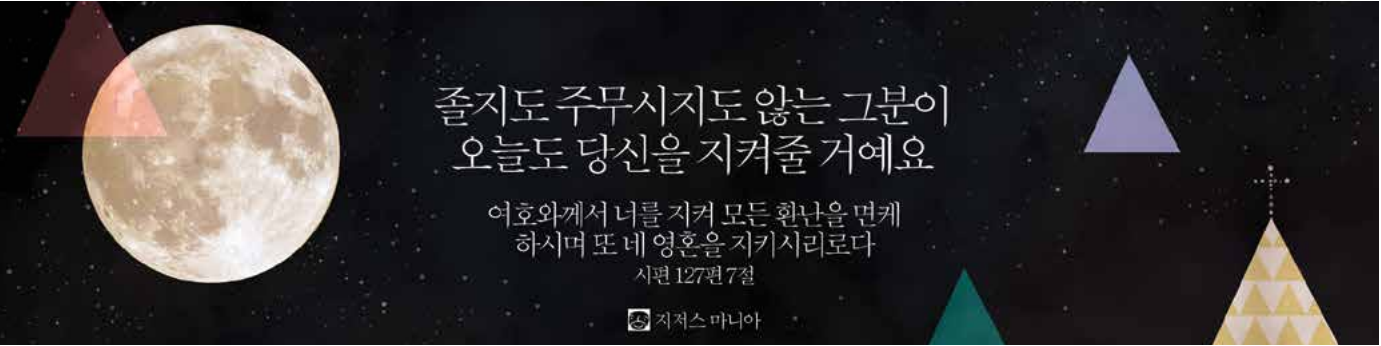
하서연 전도사
ohzion1004@daum.net

귀를 기울이세요

독일의 한 포도주 농장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포도농사를 지었고, 이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국가 관리의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독일에서는 매년 국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만 술을 담글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웬일인지 관리는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며 오지 않았고, 결국 수확시기를 놓친 채 날이 추워져 영하의 날씨에 포도가 얼어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좋은 포도농사를 다 망치고 말았구나.’ 농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뒤통에 관리의 승인을 받았지만, 포도는 이미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반건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아까운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에 반 건조 포도로 시범 삼아 포도주를 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포도로 담근 포도주는 이전의 어떤 것보다도 당도가 뛰어나고 독특하며 감미로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이스와인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때와 생각이 우리의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 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우리가 절망이나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적기에 뜻을 이루주시기 때문입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일기의 힘

일기, 쓰시나요? 전 2005년 9월 11일 일요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이시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성공 하길 원하면 일기와 저축을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새 노트를 꺼내 바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렇게 9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일기를 썼더니 성공을 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 일기는 별 게 없습니다. 온통 걱정투성이지요. 대학생 때는 성적 걱정, 돈 걱정, 친구 걱정, 취업 걱정..., 취업하고부턴 업무 걱정, 연애 걱정, 장래 걱정..., 매일 크고 작은 걱정들이 일기에 꽂힐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걱정만큼이나 감사도 많다는 것이지요. 한숨 쉬며 일기장에 썼던 당장의 문제들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달, 몇 년 후 더 좋은 쪽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지요. 늘, 일기는 제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명언을 몸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엔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문제들도 지나고 나면 별 것 아니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도 의

외로 쉽게 해결되리라는 것을 다른 책이 아닌 제가 쓴 일기장이 알게 해주었지요. 덕분에 미리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버릇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이다, 걱정 없이 산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그런 낙천적인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에서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씩 일기를 쓰도록 했는데요, 놀랍게도 일기를 쓴지 몇 달 만에 환자의 47%가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을 글로 쓰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스트레스 또한 해소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기를 쓰는 것만큼이나 과거의 일기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교훈이 되지

요. 내가 어떤 일을 극복해냈는지, 누가 내게 도움을 주었는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자주 까먹고 삽니다. 어떤 것은 영영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일기장은 다 기억해줍니다. 지금 나를 서운하게 만든 사람이 예전엔 얼마나 내게 큰 도움을 주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잡아주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 일기는 서점에 파는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훌륭한 책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독서를 하고 어학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데 바쁘지만, 제 생각에 자기계발의 기본이자 필수는 일기를 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적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자신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것,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이제 저도 잠시 덮어두었던 일기장을 다시 펼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일기장을 펼쳐 펜을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상처를 이기려면!

예전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누군가에게 더위를 파는 겁니다. 그날 하루는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절대로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대꾸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위를 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은 더위 뿐이 아닙니다. 상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누가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마치 대보름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내게 더위를 팔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말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린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저 교회를 떠나고 사람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텐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시키고 유혹한 건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말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다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형제들에 의한 상처를 극복한 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라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협력자였음을 멋지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은 결국 역전되었지요. 우물의 깊이는 돌을 던져보면 알 수 있고,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내 마음이 얕은 것입니다. 비난이나 경멸의 돌 던짐에 내마음 속의 우물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과연 얼마만큼 깊고 넓은지요?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예수님께 십자가형 판결을 내린 유대 총독 빌라도는 과연 당한 뒤 로마로 돌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인생 말년에 카프리 섬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주후 37년, 그 섬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일가도 백성들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들의 자식 대에서 왕조가 소멸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저주받은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당시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서도 그들의 최후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권력과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부질없고, 권세는 바람과 같으며 부귀영화도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최후가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으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에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

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시1:4~6).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히9:27). 그 어떤 사람도 죽음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와 어떤 권세로도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3~24).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지금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lovelyactor@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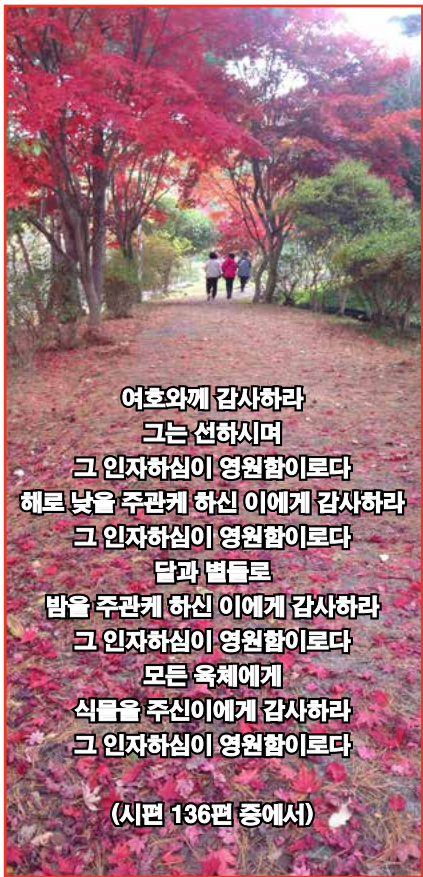
자녀와 대화를 차단하는 것들

대화가 평화로운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살아가기가 팍팍한 요즘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자리도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세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녀와의 대화는 부모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자연스러운 통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화평과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이야기는 들으려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다. 그

것은 대화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잔소리가 될 것이며, 다음번 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대화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부모가 대화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연장자라는 이유로 대화를 리드해 나간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닌 훈계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녀의 최근 심리상태나 환경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배제되어진 대화는 주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면서 시간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

난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의 희망일 뿐 자녀의 생각은 부모님과 전혀 다른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된다. 세대 간의 격차나 권위 의식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관점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 자녀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자녀가 원하고 희망하는 삶의 본질은 무엇인지, 장래의 희망은 무엇인지 세세하고 면밀한 분석 작업이 있어야 한다.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화의 기술과 요령을 모르고 대화의 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면, 또 다른 오해와 장벽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배려와 관심속에서 대화의 길이 열린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헤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편 중에서)